



귀여운너이서안
CONSCIOUSNESS
생사를 선택한 영생-의식체-들

2025.08.30. 216

컨셔스네시안Consciousnessians

생사生死를 선택한 영생-존재체-돌immortal-unit-two

모든 생명체는 출생과 죽음이라는 두 극점 사이에서 자신을 정의한다. 태어나고, 성장하며, 소멸함으로써 삶의 의미와 시간의 흐름을 체험한다.

그러나 이 행성 높은 어딘가에는 이 법칙을 모른 채, 출생과 죽음을 넘어선 의식-존재체들Consciousnessians이 존재하고 있다.

백 이십 체體의 유닛들. 그들은 먹지도, 마시지도, 숨 쉬지도 않는다. 성별도 없고, 번식이나 본능적 욕구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 인간 세계의 종교, 부, 권력, 삶과 죽음, 천국과 지옥, 화와 복 같은 개념이 있을 리 없다.

무하유無何有¹⁾로의 그들의 생태지.

1)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자연 그대로의 세계. 곧 세상의 번거로움이 없는 허무 자연(虛無自然)의 낙토(樂土)로, 장자의 소요유편逍遙遊篇에 나오는 단어.

인간과 비교한다면 유일한 유사점은 음악과 같은 선율의 파동을 어렴풋이 감지하는 흔적 구조가 남아 있을 뿐이다.

이 짧은 보고서는 그들 중 두 유닛, 이녹 Enock과 일리아 Illia가 죽음의 존재, 인간으로 완전변태完全變態 되기 위해 선택한 여정에 관한 일지日誌이다.

1장_

이녹과 일리아가 존재하는 세계는 거대한 그물망들처럼 움푹움푹 패여 굴곡진 공간이었다. 낮과 밤의 구분은 없고, 시간은 녹아가는 빙산들처럼 덩어리들로 공간에 떠 있다.

120체의 유닛은 독립적이면서도 필요할 때는 서로 미세하게 신호를 주고받는다. 모든 컨셔스네시안들은 각각의 유닛으로 그 어떤 의무도, 의심도, 의문도 없이 절대 의식의 구조체 곧 완벽한 존재로 공간을 운행 했다.

그러나 이녹과 일리아에게는 문제가 생겼다. 이녹은 끝없이 펼쳐진 공간에서 한 방향을 주시注視하기 시작했다. 그럴 때마다 인간세계에서 흘러 들어오는 미세한 파동을 감지했다.

그리고 점차 그 감각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음악의 파장과 진동이 느껴졌다.

이녹은 일리아에게 다른 유닛들에게는 전달되지 않을 정도의 열은 신호를 보냈다: ‘저건 음악의 파동이야. 너도 몇 번이나 들었다고 했던. 우리 둘에게 감각이 있는 듯 해!’

그 말은 단순한 의식 신호가 아니라 컨셔스네시안 최초의 생각이자 의견이었다. 영생-존재체immortal-unit로서 무의식 없이 영원히 계속되는 의식, 존재의 무감각과 공허.

일리아_끝나지 않는 존재는 결국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

이녹_출생과 죽음을 경험해야만 삶을 체험할 수 있어.

그 날, 인간 세계에서 흘러 들어 온 음악의 깊고 섬세한 선율. 그 짧게 이어진 파장.

이녹_끝나서 아름답다...

일리아_우리는 끝을 가질 수 있을까?

그날 이후, 둘은 영생-존재체들의 생태지
북쪽 경계에 있는 연구실을 떠올렸다. 이제
그곳이 출생과 죽음을 체험할 유일한 길임을
생각했다.

2장_

생태지 경계에는 뿌연 안개처럼 보이는 진한 파동 입자들이 뭉쳐 있었다. 유닛들에게 이동이란 공간 위를 운행하는 것뿐이었지만, 인간 세계와 경계가 되는 이 구역에서는 달랐다.

공간 안으로 들어가려는 의지 에너지가 필요하다. 의식-존재체들에게는 영원과 완전이라는 진공 상태에서 터져 소멸된 무의식, 의지, 감정, 자아가 없다. 이런 상태에서 그곳으로 가게 될 확율은 무無nihil이다.

이녹_이 무무無無 속에서도 파동이 있어.
인간 세계에서 오는 소리,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느끼게 된 걸일까?

일리아:이 느낌은 체험의 가능성일거야.
이제 이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겠어.

두 유닛 사이에는 공유된 걱정이 존재했었다:

끝없는 생존의 공허, 하루하루가 영원,
그 영원의 반복...

걱정, 생각, 의지...

완전한 무無에서

불안정한 유有가 생성되고 있었다.

이녹_WTT! 기억해? 연구실 안에서 봤던
그 장치!

일리아_기억나. 그거면 우리가 인간으로
재구성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들어
가면, 지금의 우리는 완전히 사라져.

이녹_알고 있어. 하지만 끝을 얻어야 해.
죽음 없는 생존, 의지 없는 이 의식은
버릴거야!

둘은 고요 속에서 서로의 파동을 주고받으며,
인간 세계에서 느낄 모든 감각과 경험을 상상
해 봤다.

3장_

연구실 내부는 차갑고 어떤 분위기조차 없었다. WTT(Womb To Tomb) 장치는 유닛의 영생-존재체를 녹여 액체로 분해하고 인간 세포로 재구성하는 고도로 정밀한 완전변형 holometabolism 과정 발생 기능을 갖추고 있었다:

- 분해 단계 : 유닛의 모든 구조 해체
- 재구성 단계 : 파동 데이터를 인간 세포와 기관 구조로 변환
- 통합 단계 : 새로운 인간 신체 안에 일부 기억 통합, 신경 활성화

스위치를 켜 순간, 둘의 존재는 녹아 흘러 다녔고, 이후 완전한 변태變態가 시작되었다. 이전 유닛 시절의 영원한 의식, 공허와 무한성 그리고 동시에 사지백체四肢百體의 움직임과 감각이 느껴졌다.

이нок-일리아! 마음에 느껴져. 마음이 살아
있다는 것이 느껴져!

일리아-심장, 근육, 피부...내 몸이 살아 있다
는 감각들로 가득해!

장치 속에서 그들은 유닛이 인간 위속 음식물
처럼 분해되어 소화되는 완전변태完全變態
holometabolism의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이전 무아-무념-무위의 완전한 의식으로는
연결할 수 없었던 감정들 곧 공포, 흥분,
기대, 희열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현실 체험이
었다.

4장_

완전변태가 끝나고, 이녹과 일리아는 깊게 숨을 들이고 길게 내었다. 호흡 있는 인간들. 공기는 미세한 저항을 주며 폐를 채웠다. 피부는 햇빛의 온기를 그대로 느꼈다. 심장은 규칙적으로 생력으로 박동했다. 각 혈관으로 피가 흐르고 있었다.

미각, 후각, 시각, 청각 등 모든 감각이 각기 활성화되어 하나의 이미지를 그려내기 시작했다.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감상하게 되었다.

이녹_이 순간, 살아 있음 자체가 황홀해.

일리아_눈앞의 모든 것이 새로운 경험이야.

인간으로서 느끼는 이 감각들, 생각들...의식으로는 절대 믿을 수 없어.

그들은 인간 사회 속에서 다양한 일들을 배우기 시작했다.

5장_

아침: 햇살과 바람, 커피 향과 빵 냄새

오후: 노동, 창작, 운동, 감각적 즐거움

저녁: 관계의 긴장과 화해, 사랑, 기쁨,
피로, 나른함

이нок_유한한 삶 속에서 한 순간 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조금 알겠어.

일리아_모든 경험이 새로운 색과 맛, 향을 지
니고 있어. 의식과 무의식, 이성과 감
성, 직관과 생각이 이 몸뚱이 속에서
하나가 돼서 살아 움직이고 있어!

6장_

이녹과 일리아는 120 유닛 시절을 회상했다. 이제는 118명의 유닛. 2 유닛의 증발에도 그들은 여상하고 완벽하게, 고요하고 무한하게 무아無我的 의식으로 있을 것이다.

이녹_우리가 컨셔스네시안Consciounessian 이었을 때는 영생-생명체 유닛 immortal-unit이었으니까 그 자체가 완벽이고 완전이었어. 그런데 죽음이 없으니 살아 있음에 대한 실제 경험도 없었던 거야.

일리아_이제 우리 둘은 죽을 운명의 존재들 mortal-beings이 되었기 때문에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산 존재living being가 되었어.

이에 반해 오히려 영생이나 무병장수를 갈구하며 [지금-여기-이렇게]로의 자기 일상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인간들을 볼 때면 이복은 생각했다.

‘영생이나 미래만 바라는 인간들은 자신들의 존재인 현재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이걸 흡사 완전한 의식으로 영원히 존재하기에 현재가 없는 컨셔스네시안들과 비슷해.

지금-여기에 깨어 살아 있으면 끝 날까지 삶은 늘 모자람이 없는 것일 텐데 말이야. 무척 짧은 기간을 무의식으로 살고 있구나. 시한부인데...’

7장_

이녹과 일리아는 인간으로서 삶을 사랑하며, 끝이 있는 존재로서 매 순간 살아 있음을 느끼며 살았다.

과거 영생-존재체 세계는 더 이상 그 둘의 현재가 아니었다. 미래도 아닌 것이 되었다. 이러한 현실이 실현된 것에 이녹과 일리아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살았다.

인간들은 유사 이래로 무병영생의 존재를 그토록 꿈꾸고 갈망해 왔다. 천국 입국자.

그러나 이녹과 일리아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영생-존재체immortal-unit는 실제하는 현실을 경험, 감각할 수 없고 존재와 삶의 의미에 대해 사유할 수도 없다. 최고의 의식과 완전한 구성체를 소유하고 있을 뿐...그것도 영원히.

그 둘은 깨달았다-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살아 나아가는 도중途中in progress([L]pro:앞으로_gradi:걷다)이며 와중渦中in vortex([L]vertere:돌며 회전하다, 방향을 바꾸다, 정점vertex)인 일상생활 이야말로 [무에서 유가 창조됨] 그리고 [우주 최고 최상의 축복]임을.

이렇게 그들은 매 순간을 살아가며, 인간으로서의 삶을 향유했다. 그리고 WTT(Womb To Tomb) 장치의 끝 자字 T, 인간들의 오랜 소멸 장치, 무덤tomb에 들어가 분해되었다. 흙humus으로.

이로써 그들의 음악은 끝났다. 그와 동시에 다른 음악들이 파장 아닌 일상의 생활로 그려 펼쳐지기 시작했다. 보기에 참 좋은 인간의 삶. 끝이 있기에. 살기에 참 아름다운 나날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